



11차 전기본에 신규원전 4기 건설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닌 바,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람

〈보도 주요내용〉

1.17.(수) 국민일보는 「신규 원전 4기로 확정, 2기는 새 부지에 건립」 제목 하에 11차 전기본 초안에 원전 확대 폭은 4기로 확정, 2기는 신규 부지에 건설, 신재생에너지 비중 10차 계획 수준 유지, LNG 비중 확대 등이 포함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현재 11차 전기본의 내용은 전문가 위원회에서 검토 중에 있는 바, 국민일보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에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산업부 전력산업정책과	책임자	과 장	문양택	(044-203-3880)
		담당자	사무관	이우진	(044-203-3881)